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충원과 특징*

이 준 안 | 인천대학교

1987년 민주화 이후 1991년부터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배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전향적 야망에 영향을 받아 대거 국회로 진출하는 중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발견한 특징은 첫째, 여성이 극소수이다. 둘째,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셋째, 기초단체장의 비율이 가장 크다. 넷째, 선수가 높아질수록 해당 국회의원 숫자는 크게 줄었다. 다섯째, 한나라당 계열 소속이 월등히 많다. 여섯째, 지역구가 서울과 경기 및 부산과 경북에 많았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도 의미있는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충원 경로가 된다.

주요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경로, 야망이론

I. 머리말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역임한 뒤 국회로 진출하는 국회의원 충원의 새로운 경로와 그 특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선거의 시작은 1991년 3월 구·시·군의회의원선거로 이루어졌고 그 뒤 같은 해 6월에는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이어졌다. 당시 각급 지방의 장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그러나 1995년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참여에 의하여 동시에 선출되

*논문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 인천대학교의 김승수 군에게 감사의 글을 남긴다.

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과거와 다른 수준의 지방자치시대가 개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선출된 각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1998년까지로 정했다. 그 뒤 1998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4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1995년 첫 번째 직선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서 지방직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는 일은 본격화되는 중이다. 1995년 첫 임기 뒤 열린 첫 번째 국회의 원선거인 제15대(1996년)부터 가장 최근인 제18대(2008년)까지 모두 92명의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했고 국회의 대를 거듭할수록 그 숫자는 점차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1991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직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전이나 1991년에 임명된 일부 지방의 장 출신이다.

제15대 국회에서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은 모두 19명으로 출발하여 제16대 국회에는 35명으로 증가했고 제17대 국회에는 43명으로 늘었으며 제18대 국회에는 48명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단순 합계는 총 145명에 이르나 그 가운데 무려 42명이 재선 이상을 역임했다. 이를 감안하여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92명으로 추려지고 그 명단은 논문 끝의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¹⁾ 이 논문의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국회의원 당선인 현황을 기본으로 했다.

이렇듯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점차 중앙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착하는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더 쌓이면 이러한 충원 경로는 더욱 확고해져 과거와 현격하게 다른 국회의원의 충원통로로 진화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충원 및 그 특징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일차적으로 기초적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

1) 한 명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하나의 경력만 보유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지방직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공직을 두루 거쳤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가령 허태열 의원은 의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부천시장,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민방위본부장, 제26대 충북도지사 등을 역임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충북도지사를 경력의 기준으로 삼는다.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연령이나 정당소속 등의 정보는 당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여 학술적 공백을 메우고 장차 보다 더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도모한다. 한마디로 이 연구는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충원과 특징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먼저 지방직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정치적 동기를 설명해본다. 여기에는 정치인의 전향적 야망이론(prospective ambition theory)이 간단하게 소개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 논문은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다양한 특징을 하나씩 살펴본다. 제15대 국회부터 진출한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공통적인 특성과 그 배경을 규명해보는 것이다. 이 논문의 결론은 연구결과를 종합한다. 이 논문은 전향적 야망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한국적 사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 실제로 전향적 야망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국회의원 충원에 있어서 새로운 경로로 떠오르는 지방직이라는 경력이 주목하고 이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제반 특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며 설명하는 것이다.

II. 지방직 출신의 국회진출 동기: 전향적 야망

야망이론(ambition theory)이란 한마디로 정치의 원천이 다름 아닌 개인의 야망이고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는 야망(ambition)과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 사이의 상호작용(interplay)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본다(Schlesinger 1966). 야망이론은 개인이 정치에 참여하여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현상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를 개인의 야망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개인이 야망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전에는 자신의 주위에 조성된 환경을 고려하게 마련이다. 개인은 합리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 출마할 것인지 은퇴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보다 더 상위직에 도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야망이론은 본질적으로 개인이 보다 높은 목표를 성취하려는 전향적인 야망을 보유한다고 본다. 실제로 전향적인 야망이 아닌 것은 야망이 아닌 것이다. 미국에서 하원의원이 계속해서 재선에 나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상위직인 상원의원이나 주지사 또는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행위가 바로 정치인의 전향적 야망과 그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Aldrich 1995; Brady, Buckley, and Rivers

1999; Rohde 1979). 이때 합리적인 하원의원은 자기가 속한 주의 상위직(상원의원, 주지사)이 공석이 되었거나 그 공석에 출마할 잠재적 경쟁자가 없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약할 때 자신의 전향적 야망을 구현하기로 결정한다(Kiewiet and Zeng 1993).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원의원이 은퇴를 결정할 때도 건강이나 연령 또는 스캔들이 변수가 되지만 자신에 대한 도전자가 없거나 도전자가 매우 약하다면 공식 지향적인(*office seeking*) 정치인은 결코 은퇴를 선택하지 않는다.

정치적 야망이론은 정당의 지지기반이 재편성되거나 이념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속 정당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Aldrich and Bianco 1992; Katz and Sala 1996). 이들에게는 전향적 야망만큼이나 현상유지(*status quo*)가 매우 시급한 것이다. 순수한 공직 추구자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새로운 정당을 찾아 나선다고 본다. 가령 1995년 당시 공화당의 상승세에 영향을 받아 루지아나주의 하원의원(Billy Tauzin)이나 알라바마주의 상원의원(Richard Shelby)이 민주당을 탈당하여 공화당으로 입당한 일이 발생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과 민주당 우위의 의회에 영향을 받아 공화당 상원의원(Arlen Specter)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 일도 생겼다. 일반적으로 당적을 바꾸는 경우에는 우호적인 상임위원회 배정이나 서열상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경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했던 결과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Schlesinger 1966).

이러한 야망이론은 그간 미국에서 흑인 정치인의 정치행위(Stone 1980), 여성 정치인의 정치행위(Palmer and Simon 2003), 행정부의 내각에 진출한 정치인의 행위(Keith 1991) 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나아가 야망이론은 미국이라는 정치적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의 맥락에서 개인의 정치행위를 분석하는 데로 확장되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소련의 정치국원에 대한 분석(Ciboski 1974)과 이스라엘 정치인의 정치행위에 대한 연구(Pomper 1975)를 꼽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야망이론에 기초하여 하위 선출직 정치인이 상위직에 도전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지지 않는다. 한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한 정치인 충원이라는 현상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루어진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국회를 포함하여 보다 더 상위

직에 진출하는 현상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중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국회로 진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적 동기나 배경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인의 상향적 야망이 자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물론 지방직을 거치지 않고 국회로 입성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정치적 야망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중요한 경로 가운데 하나가 육사출신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대대로 특정 대학 출신이나 공무원 또는 법조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비중이 높다. 이들의 국회진입 동기도 야망이론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기초단위 지방직에서 광역단위 지방직으로, 그리고 광역단위 지방직에서 국회의원으로 진출한 것과 같이 각종 지방직에서 국회의원으로 단계적으로 진출한 것이 보다 더 전형적인 야망이론에 부합한다고 이해한다. 또한 가령 이용희 의원과 같이 한국의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재선을 위하여 소속 정당을 바꾸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적 동기나 배경을 설명하는데 야망이론은 매우 적절한 이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지방직 출신이 국회에 진출한 각 선거구의 기회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다양한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지방 정치인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결정을 내릴 때 현역 국회의원의 존재나 유력한 경쟁자의 유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선거 상황을 감안하면 이른바 물갈이 또는 '세대교체' (1996년과 2000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움직임(2004년), 또는 경제위기의 극복(2008년)이라는 큰 정치적 흐름이나 선거의 바람이 각 국회의원선거에서 지방직 출신이 출마를 결정할 때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개별 선거구의 기회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III.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특징

1. 극소수의 지방직 출신 여성 국회의원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여성이 극소수라는 사실이다. 여성은 92명의 연구 대상 국회의원 가운데 9명에 그쳐 9.8%에 불과하다. 9명의 여성 의원은 김방림 의원(제16대), 김을동 의원(제18대), 박순자 의원(제17대, 제18대), 손희정 의원(제16대), 이영순 의원(제17대), 이정선 의원(제18대), 전재희 의원(제16대, 제17대, 제18대), 최순영 의원(제17대), 홍미영 의원(제17대)이다. 지방직 출신 여성의원의 숫자가 극소수인 배경에는 한국에서 여성이 선출직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이 놓여 있다. 여성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기 쉽지 않은 데다가 이 관문을 통과한 이들 가운데 다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다음의 <표 1>과 같이 지방직 출신 여성 국회의원의 분포를 각 국회별로 살펴보면 제15대에는 단 한명도 없고 제16대에는 3명(김방림 의원, 손희정 의원, 전재희 의원), 제17대에는 5명(박순자 의원, 이영순 의원, 전재희 의원, 최순영 의원, 홍미영 의원), 제18대에는 4명(김을동 의원, 박순자 의원, 이정선 의원, 전재희 의원)이었다. 이 표의 아래 두 칸에는 제15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12명으로 전체의 4.0%에 불과하고 제16대에는 19명(7.0%), 제17대에는 39명(13.0%), 제18대에는 41명(13.7%)이었던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를 감안하면 지방직 출신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는 각 국회에 차지하는 여성 의원의 숫자에 비해서도 더욱 적은 것

<표 1> 지방직 출신 여성 국회의원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해당 국회의원	-	3명	5명	4명
비율	-	1.1%	1.7%	1.3%
여성 국회의원*	12명	19명	39명	41명
비율	4.0%	7.0%	13.0%	13.7%

출처: * 김원홍 · 이현출 · 김은경 2007.

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9명의 여성의원들이 모두 전국구 또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했다는 사실이다.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라는 경력은 여성으로 하여금 전국구 내지 비례대표로 발탁되는데 좋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전재희 의원은 2000년 국회의원선거 결과 제16대 국회에서 전국구로 출발하였지만 2002년 8월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뒤 현재까지 3선에 이르렀다. 박순자 의원도 제17대에 처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제18대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었다. 전재희 의원과 박순자 의원을 제외한 다른 여성의원들은 모두 초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2. 비교적 높은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연령대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의 <표 2>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출신 국회의원을 연령대별로 요약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50대가 70명으로 48.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60대가 36명으로 24.8%에 이르렀다. 이에 비하여 40대는 32명으로 22.1%, 30대는 5명으로 3.4%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70대가 2명(1.4%)으로 가장 적었다.

여기에서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연령대별 분포를 전체 국회의원의 그것과 비교하면 전자의 수준이 어떠한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 연구팀이 제헌국회부터 제17대 국회까지 국회의원의 각종 통계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표 2>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연령대(단위: 명, %)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합계
30대	2명(10.5)	1명(2.9)	2명(4.7)	-	5명(3.4)
40대	-	11(31.4)	13(30.2)	8명(16.7)	32(22.1)
50대	13(68.4)	14(40.0)	16(37.2)	27(56.3)	70(48.3)
60대	4(21.1)	9(25.7)	11(25.6)	12(25.0)	36(24.8)
70대			1(2.3)	1(2.10)	2(1.4)
합계	19(100)	35(100)	43(100)	48(100)	145

한국 국회의원 가운데는 50대가 1,674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600명(36.4%), 60대가 626명(14.2%)이었다(조선일보 2008/05/19). 제헌국회부터 제17대 국회까지 연령대와 비교하여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50대와 60대의 비중이 상당히 더 많았고 40대의 비중은 비교적 더 적었다. 전체 국회의원의 연령대와 비교할 때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연령대가 50대와 60대에 많이 몰려있는 이유는 40대나 50대에 국회의원의 전단계로 다양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것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구청장이나 시장 또는 시·도의회의원으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냈다. 이에 더하여 구청장이나 시장 또는 시·도의회의원으로 재선 또는 3선을 했다면 이들이 국회에 진출한 시점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늦어졌을 것이다.

나아가 각 대 국회의원의 평균연령과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을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다음의 <표 3>은 각 집단의 평균연령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제15대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이 54.6세로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평균연령(55.2세)보다 조금 더 낮다. 제16대도 전자의 평균연령이 53.8세로 후자의 평균연령(53.9세)보다 아주 조금이나마 더 낮다. 그러나 그 차이는 제17대 국회부터 더 벌어진다. 제17대도 전자가 51.0세이고 후자가 53.2세이다. 마지막으로 제18대도 전자의 평균연령이 53.2세로 후자의 평균연령(56.0세)에 비하여 더 적었다. 제헌국회부터 제17대 국회까지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은 50.4세였다(조선일보 2008년 5월 19일). 이에 비하면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에 진출한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평균연령(54.5세)도 훨씬 더 높은 것이다.

<표 3>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평균연령(단위: 세)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국회의원 평균연령	54.6	53.8	51.0	53.2
지방직 출신 평균연령	55.2	53.9	53.2	56.0

3. 다수의 기초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는 기초단체장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다음의 <표 4>는 지방직 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하기 전 최종적인 경력의 빈도를 정리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시장이나 구청장을 포함한 기초단체장 출신이 55명으로 전체 145명 가운데 37.9%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광역시·도 의회의원인 광역의원출신으로 52명(35.9%)이었다. 그 다음은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를 포함한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37명(25.5%)에 이르렀다. 이에 비하여 기초의회의원은 부천시의회회원을 거친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제17대) 하나에 그쳤다.

특히 기초단체장 가운데 구청장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16대 국회에는 9명의 기초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무려 7명이 구청장 출신이었다. 제17대 국회에도 17명의 기초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약 반(8명)이 구청장 출신이었다. 제18대 국회에도 27명의 기초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약 반(13명)이 구청장 출신이었다. 구청장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거의 비슷한 지역의 예산과 행정을 담당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의 자리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된 것이다.

<표 4>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전직 유형분포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합계
광역단체장	12명 (63.2%)	11명 (31.4%)	8명 (18.6%)	6명 (12.5%)	37명 (25.5%)
기초단체장	2 (10.5)	9(7청장) (25.7)	17(8청장) (39.5)	27(13청장) (56.3)	55 (37.9)
광역의원	5 (26.3)	15 (42.9)	17 (39.5)	15 (31.2)	52 (35.9)
기초의원	0 (0)	0 (0)	1 (2.3)	0 (0)	1 (0.7)
합계	19 (100)	35 (100)	43 (100)	48 (100)	145 (100)

이에 비하여 광역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은 제15대에 12명에서 출발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광역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의 숫자는 제16대에 11명으로 줄었고 제17대에는 8명으로 더욱 크게 감소했다. 나아가 제18대에는 6명으로 줄어 제15대에 비하여 절반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로 따지면 광역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한 지방선거에서 통상 광역단체장 정수가 16명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한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회의원의 정수는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고 이들 가운데 각각 최대 27명이나 15명 정도만 국회의원이 되었다(〈표 4〉 참조).

이와 비슷한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역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른 지방직에 비하여 광역단체장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역단체장이라는 지위와 경력이 국회의원의 그것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는 국회의원 출신이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으로 정착되는 중이다.

4. 초선이 많은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특징 가운데 네 번째는 아직 선수와 해당 국회의원 숫자가 반비례한다는 사실이다.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을 〈부록〉에 기초하여 선수별로 구분한 것은 다음의 〈표 5〉에 수록되어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초선의원이 92명 가운데 50명으로 54.3%에 육박했다. 게다가 초선을 기록한 국회의원은 제15대에 6명, 제16대에는 11명, 제17대에는 12명, 제18대에는 21명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매 국회마다 초선의원의 숫자가 가장 많고 선수가 높아질수록 해당 국회의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지방자치 실시된 역사가 충분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선수가 충분히 높아질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각 국회에서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초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15대에 31.6%(6명), 제16대에 31.4%(11명), 제17대에 28.6%(12명), 제18대에 44.7%(21명) 정도였다. 전원이 초선이었던 제헌국회를 제외하고 제17대 국회까지 초선의원의 비율은 54.8%이다. 이러한 통계를 감안하면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가

〈표 5〉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선수분포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6선
50명 (54.3%)	24명 (26.1%)	13명 (14.1%)	2명 (2.2%)	2명 (2.2%)	1명 (1.1%)
제15대-6명 (이의익, 권수창, 김영진, 김고성, 국창근, 전석홍)	강운태(16, 18) 강현욱(15, 16) 김기재(15, 16) 김낙성(17, 18) 김성순(16, 18) 김충환(17, 18) 김태홍(16, 17) 박기춘(17, 18) 박상돈(17, 18) 박순자(17, 18) 박종우(15, 16)	권오을(15, 16, 17) 김광원(15, 16, 17) 김학송(16, 17, 18) 서병수(16, 17, 18) 오용운(10, 13, 15) 원유철(15, 16, 18) 원혜영(14, 17, 18) 윤두환(16, 17, 18) 이상배(15, 16, 17) 전재희(16, 17, 18) 정갑윤(16, 17, 18) 정장선(16, 17, 18) 허태열(16, 17, 18)	서정화 (12, 13, 14, 15) 이해봉 (15, 16, 17, 18)	이용희 (9, 10, 12, 17, 18) 이인제 (13, 14, 16, 17, 18)	김종호 (11, 12, 13, 14, 15, 16)
제16대-11명 (설송웅, 도종이, 권태망, 민봉기, 정갑길, 송석찬, 신현태, 장정언, 이원형, 손희정, 김방림)	김성순(16, 18) 김충환(17, 18) 김태홍(16, 17) 박기춘(17, 18) 박상돈(17, 18) 박순자(17, 18) 박종우(15, 16)	원유철(15, 16, 18) 원혜영(14, 17, 18) 윤두환(16, 17, 18) 이상배(15, 16, 17) 전재희(16, 17, 18) 정갑윤(16, 17, 18)	서정화 (12, 13, 14, 15) 이해봉 (15, 16, 17, 18)	이용희 (9, 10, 12, 17, 18) 이인제 (13, 14, 16, 17, 18)	김종호 (11, 12, 13, 14, 15, 16)
제17대-12명 (김낙순, 노현송, 심재덕, 이기우, 이상락, 김명주, 김혁규, 한광원, 홍미영, 정화원, 이영순, 최순영)	박혁규(16, 17) 심대평(17, 18) 유정복(17, 18) 윤한도(15, 16) 이명규(17, 18) 이시중(17, 18) 이재창(15, 17)	정장선(16, 17, 18) 허태열(16, 17, 18)	서정화 (12, 13, 14, 15) 이해봉 (15, 16, 17, 18)	이용희 (9, 10, 12, 17, 18) 이인제 (13, 14, 16, 17, 18)	김종호 (11, 12, 13, 14, 15, 16)
제18대-21명 (김희철, 이진복, 박대해, 유재중, 이학재, 김재균, 임영호, 김창수, 백재현, 김성수, 홍장표, 백성운, 김학용, 김세웅, 유성엽, 김영록, 이운석, 정해걸, 이정선, 임동규, 김을동)	정상천(14, 15) 조승수(17, 18) 주승용(17, 18) 최용규(16, 17) 최인기(17, 18) 허천(17, 18)	정장선(16, 17, 18) 허태열(16, 17, 18)	서정화 (12, 13, 14, 15) 이해봉 (15, 16, 17, 18)	이용희 (9, 10, 12, 17, 18) 이인제 (13, 14, 16, 17, 18)	김종호 (11, 12, 13, 14, 15, 16)

운데 초선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재선으로는 전체 92명 중 24명으로 26.1%를 차지했다. 재선 의원 가운데 울산 북구의 조승수 의원은 3선인 같은 지역구 윤두환 의원과 각각 선거법 위반으로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서로 순서를 바꿔가며 재선거를 통해 자리를 주고받는 기록을 보유한다. 제17대에는 조승수 의원이 먼저 당선되었지만 재선거를 통해 윤두환 의원이 국회의로 진출했다. 제18대에는 두 사람 사이에 순서가 달라졌다.

그 다음으로 3선 의원은 13명으로 14.1%에 머물렀다. 이들 3선 의원 가운데 오용운 의원은 1973년에 충북도지사로 임명되었고 제10대 국회의원(공화당, 괴산·음성·진천), 제13대 국회의원(청주을구), 제15대 국회의원(청주 흥덕구)을 지냈다. 이와 달리 원혜영 의원은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부천시장을 연임하고 나서 다시 제17대와 제18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 외에 4선 의원은 2명으로 2.2%에 그쳤다. 서정화 의원은 충남도지사를 역임한 뒤 제12대부터 제15대까지 내리 국회에서 일했다. 이해봉 의원은 서울시장을 역임한 뒤 제15대부터 제18대까지 연달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 다음으로 5선 의원은 2명(2.2%)이다. 이용희 의원은 1960년 제3대 충북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제9대, 제10대, 제12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그 다음으로 이용희 의원은 제17대에 열린우리당으로 국회에 재진입한 뒤 제18대에는 자유선진당으로 당선되었다. 이인제 의원은 경기도지사를 지낸 뒤 제13대와 제14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 뒤 이인제 의원은 제16대부터 제18대까지 연달아 국회의원을 지냈다.

마지막으로 6선 의원도 1명(1.1%)에 그쳤다. 김종호 의원은 1980년 충북도지사 임명된 뒤 1981년 제11대부터 제16대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역시 선수가 높아질수록 현재 선출직보다는 과거 임명직 지방의 장이란 경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았다.

5.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과 정당소속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특징 가운데 다섯 번째는 한나라당 계열 소속이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표 6>은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을 정당소속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6〉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정당분포(단위: 명)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합계
한나라당	8(신한국당)	19	19	18 3(친박연대)	67
민주당	1(국민회의) 1(민주당)	1(우리당) 14(민주당)	18(우리당)	11(통합민주당)	46
자민련	6	1	2(자민련) 1(자유선진당)	6(자유선진당)	16
민주노동당			3	1(진보신당)	4
무소속	3			9	12
합계	19	35	42	47	145

이 표에 따르면 145명 가운데 67명(46.2%)의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이나 그 전신인 신한국당, 또는 한나라당으로부터 분화된 친박연대 등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렇게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계열 소속이 많은 이유는 과거 임명직 지방의 장(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을 비롯한 많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민주당 계열의 정당소속은 46명(31.7%)이었다. 여기에는 국민회의, 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등을 모두 망라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금은 사라진 자민련 계열 소속은 16명(11.0%)에 그쳤다. 여기에는 자민련과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을 합한 것이다. 그 다음은 무소속으로 12명과 민주노동당 및 진보신당 소속으로 4명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정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배출한 것은 각 지역별로 지방선거를 통하여 다양한 정당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지방직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6.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과 지역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특징 가운데 여섯 번째는 지역구가 서울과 경기 및 부산과 경북에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표 7〉은 전국구/비례대표를 포함하여 지방직

〈표 7〉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지역분포(단위: 명)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합계
서울		2	3	3	8
부산	1	4	2	5	12
대구	2	1	2	2	7
인천		2	2	1	5
광주		3	1	2	6
대전		1	1	2	4
울산		2	3	3	8
경기	4	6	10	12	32
강원	1		1	1	3
충북	2	1	2	2	7
충남	1	1	3	4	9
전북	1	1		2	4
전남	1		2	4	7
경북	3	3	3	1	10
경남	1	2	2	1	6
제주		1			1
전국구/ 비례대표	2	5	6	3	16
합계	19	35	43	48	145

출신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요약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8명이 지역구를 서울에 두었고 무려 32명이 경기도에서 당선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12명이 부산에서 당선되었고 10명이 경북에 지역구를 삼고 있었다. 이렇게 이 지역 출신이 많은 것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정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훨씬 많은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 지역 출신 지방직 정치인이 국회로 진출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에 비하여 지방직 국회의원 가운데 강원도에서 당선된 사례는 3명에 그쳤고 제주에서 당선된 경우는 1명에 머물렀다.

마지막으로 전국구나 비례대표도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진출하는데 의미있는 경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7〉에 따르

면 해당 국회의원 가운데 과거 전국구 출신은 7명이고 현행 비례대표 출신은 9명이다. 총 145명 가운데 16명으로서 11.0%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계는 <표 7>에서 경기 다음으로 높은 비중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경력을 가진 정치인이 각 정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IV.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진화 중인 새로운 국회의원 충원의 경로로서 전향적 야망에 자극을 받은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다양한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91년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다음부터 지방직 출신 정치인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로는 더욱 확고하게 정착될 전망이다. 제15대 국회에서 지방직 출신이 19명이었는데 제16대 국회에서 35명, 제17대 국회에서 43명, 제18대 국회에서 48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92명의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또는 선수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 총합 145명의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특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 확인한 특징 가운데 첫째는 여성이 극소수이라는 사실이다. 여성은 92명의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9명(9.8%)에 불과했고 모두 전국구 또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했다. 둘째,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50대가 70명(48.3%), 60대가 36명(24.8%), 40대가 32명(22.1%), 30대가 5명(3.4%)이었다. 셋째, 기초단체장의 비율이 가장 크다. 구청장을 포함한 기초단체장 출신이 55명(37.9%), 광역의회의원 출신이 52명(35.9%), 광역단체장 출신이 37명(25.5%), 기초의회의원 출신이 1명(0.7%)이었다. 넷째, 선수가 높아질수록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숫자는 크게 줄었다. 초선의원이 50명(54.3%), 재선의원이 24명(26.1%), 3선의원은 13명(14.1%), 4선의원과 5선의원이 각 2명(2.2%), 6선의원이 1명(1.1%)이었다. 다섯째, 한나라당 계열 소속이 월등히 많아 전체 145명 가운데 67명(46.2%)을 차지했다. 여섯째, 지역구가 서울과 경기 및 부산과 경북에 전체 145명 가운데 62명(42.8%)이나 몰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가 의미있는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총원경로로 자리잡았다.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전국구 출신(7명)과 비례대표 출신(9명)은 총 145명 가운데 16명(11.0%)에 이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의원의 수가 적거나 초선의원의 수가 많은 것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적고 초선의원이 많은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의원은 해당 국회 전체에 비하여 특히 더 적은 상황이며 초선의원도 해당 국회 전체에 비하여 조금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출신 국회의원은 대체로 젊은 시절 지방직을 마치고 국회에 진출한 까닭에 전체 국회의원의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전향적 야망이론에 정반대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5선(제8대, 제9대, 제10대, 제12대, 제13대)에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한 노승환 의원이 1995년과 1998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마포구청장으로 자리를 바꾼 것이다.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3선(제11대~제13대)의 이대엽 의원이 기초단체장(성남시장)으로 변신했고 재선(제11대와 제13대)의 김문원 의원도 기초단체장(의정부시장)이 되었으며 제14대 성무용 의원도 기초단체장(천안시장)이 되었다. 또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제16대의 전갑길 의원은 광산구청장으로 진출했다. 그만큼 기초단체장의 지위가 높아진 것이고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보유하면서 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국회의원에 도전하기 좋은 경로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제16대 국회에서 26일 간 전국구 의원으로 일한 안희옥 의원은 2006년 서울시의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에서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로 진출한 유일한 사례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채회 의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역임하고 국회의원이 되어 재선, 3선을 한 뒤 장관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인제 의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뒤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나서 장관에 발탁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선거에 도전하는 사례도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단기간 동안이나마 역임한 뒤 서울시장을 거쳐 청와대로 진출한 사례가 되었다.

특히 한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선제한 규정이 있는데 1995년 이래 이

규정에 해당하는 잠재적 국회의원 후보군이 곧 대거 배출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주의회 의원의 임기제한이 정치인의 전향적 야망을 발동시키고 자극시키는 매카니즘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Robinson 2007). 이 논문에서 살펴본 지방직 출신의 국회진출이라는 새로운 충원경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육사출신이 국회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였던 것과 천양지차를 보인다. 또한 1990년대까지 국회가 대체로 행정 경험이 적은 순수 정치인 위주로 구성되었던 시절과도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착되는 지방자치제가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투고일 2009년 8월 19일

심사일 2009년 9월 1일

게재확정일 2009년 10월 5일

참고문헌

- 김원홍 · 이현출 · 김은경. 2007.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1호.
- Aldrich, John. 1995. *Why Parties? The Origin and Trans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ady, David, Kara Buckley, and Douglas Rivers. 1999. "The Roots of Careerism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4, 489-510.
- Ciboski, Kenneth N. 1974. "Ambition Theory and Candidate Members of the Soviet Politburo." *Journal of Politics* 36. No. 1 (February), 172-183.
- Katz, Jonathan N. and Brian R. Sala. 1996. "Careerism, Committee Assignments, and the Electoral Conn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 21-33.
- Keith, Nicholls. 1991. "The Dynamics of National Executive Service: Ambition Theory and the Careers of Presidential Cabinet Member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4, 149-172.
- Kiewiet, R., and L. Zeng. 1993. "An Analysis of Congressional Career Decisions, 1947-198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 No. 4, 928-41.
- Palmer, Barbara, and Dennis Simon. 2003. "Political Ambition and Women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16-2000."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6 (June), 27-138.

- Pomper, Gerald M. 1975. "Ambition in Israel: A Comparative Extension of Theory and Dat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28 (December), 712-732.
- Robinson, Gregory. 2007. "Toward an Ambition Theory of Legislative Organization: How State Legislative Term Limits Show Us the Way Past the 'Reelection Imperative.'"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 April 16, 2007.
- Rohde, David W. 1979. "Risk-Bearing and Progressive Ambitio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 1-26.
- Schlesinger, Joseph A. 1966. *Ambition and Politics: Political Careers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Rand McNally.
- Stone, Pauline Terrelonge. 1980. "Ambition Theory and the Black Politicia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339 (March), 94-107.

〈부록 1〉 지방직 출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경력
1	부산해운대·기장을	신한국당	김기재	남	50	부산시장
2	대구 북구갑	자민련	이의익	남	55	창원시장
3	대구 달서구을	무소속	이해봉	남	53	대구시장
4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사민련	권수창	남	53	경기도의원
5	경기 평택시갑	무소속	원유철	남	33	경기도의원
6	경기 파주시	자민련	이재창	남	59	경기도지사
7	경기 김포군	무소속	박종우	남	57	인천시장
8	강원 원주시을	신한국당	김영진	남	55	강원도지사
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민련	오용운	남	69	충북도지사
10	충북 괴산군	신한국당	김종호	남	60	충북도지사
11	충남 연기군	자민련	김고성	남	54	충남도의회부의장
12	전북 군산시을	신한국당	강현욱	남	58	전북도지사
13	전남 담양군·장성군	국민회의	국창근	남	57	전남도의회 의장
14	경북 안동시갑	민주당	권오을	남	39	경북도의회의원
15	경북 상주시	신한국당	이상배	남	56	서울시장
16	경북 영양군·봉화군·울진군	신한국당	김광원	남	55	포항시장
17	경남 의령군합안군	신한국당	윤한도	남	58	경남도지사
18	전국구	신한국당	전석홍	남	62	전남도지사
19	전국구	자민련	정상천	남	65	서울시장

(부록 2) 지방직 출신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경력
1	서울 용산구	민주당	설송웅	남	57	용산구청장
2	서울 송파구을	민주당	김성순	남	59	송파구청장
3	부산 진구을	한나라당	도종이	남	58	부산시의회 의장
4	부산 북구장서구을	한나라당	허태열	남	54	충북도지사
5	부산 연제구	한나라당	권태망	남	46	부산시의회의의원
6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한나라당	서병수	남	56	해운대구청장
7	대구 달서구을	한나라당	이해봉	남	57	대구시장
8	인천 남구갑	한나라당	민봉기	남	63	남구청장
9	인천 부평구을	우리당	최용규	남	48	부평구청장
10	광주 남구	민주당	강운태	남	59	광주시장
11	광주 북구을	민주당	김태홍	남	57	북구청장
12	광주 광산구	민주당	전갑길	남	42	광주시의회 부의장
13	대전 유성구	민주당	송석찬	남	48	유성구청장
14	울산 중구	한나라당	정갑윤	남	49	경남도의회의의원
15	울산 북구	한나라당	윤두환	남	45	울산시의회의의원
1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나라당	신현태	남	53	경기도의회의의원
17	경기 평택시갑	민주당	원유철	남	37	경기도의회의의원
18	경기 평택시을	민주당	정장선	남	42	경기도의회의의원
19	경기 광명시을	한나라당	전재희	여	50	광명시장
20	경기 광주시	한나라당	박혁규	남	45	경기도의회의의원
21	경기 김포군	민주당	박종우	남	61	인천시장
22	충북 괴산군	자민련	김종호	남	64	충북도지사
23	충남 논산시금산군	민주당	이인제	남	51	경기도지사
24	전북 군산시	민주당	강현욱	남	62	전북도지사
25	경북 안동시갑	한나라당	권오을	남	43	경북도의회의의원
26	경북 상주시	한나라당	이상배	남	60	서울시장
27	경북 영양군 · 봉화군 · 울진군	한나라당	김광원	남	59	포항시장
28	경남 진해시	한나라당	김학송	남	47	경남도의원
29	경남 의령군합안군	한나라당	윤한도	남	62	경남도지사
30	제주 북제주군	민주당	장정언	남	63	제주도의회 의장
31	전국구	한나라당	서정화	남	67	충남도지사
32	전국구	한나라당	이원형	남	48	대구시의회의의원
33	전국구	한나라당	손희정	여	61	경북도의회의의원
34	전국구	민주당	김방림	여	59	서울시의원
35	전국구	민주당	김기재	남	54	부산시장

〈부록 3〉 지방직 출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경력
1	서울 양천구을	우리당	김낙순	남	46	서울시의회의원
2	서울 강서구을	우리당	노현송	남	50	강서구청장
3	서울 강동구갑	한나라당	김충환	남	50	강동구청장
4	부산 북구강서구을	한나라당	허태열	남	58	충북도지사
5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한나라당	서병수	남	52	해운대구청장
6	대구 북구갑	한나라당	이명규	남	48	북구청장
7	대구 달서구을	한나라당	이해봉	남	61	대구시장
8	인천 부평구을	우리당	최용규	남	48	부평구청장
9	인천 중구동구용진	우리당	한광원	남	48	인천시의회의원
10	광주 북구을	우리당	김태홍	남	61	북구청장
11	대전 서구을	자유선진당	심대평	남	67	충남도지사
12	울산 중구	한나라당	정갑윤	남	53	경남도의회의원
13	울산 북구	민주노동당	조승수	남	41	북구청장
14	울산 북구	한나라당	윤두환	남	50	울산시의회의원
15	경기 수원시장안구	우리당	심재덕	남	65	수원시장
16	경기 수원시권선구	우리당	이기우	남	37	경기도의회의원
17	경기 성남시중원구	우리당	이상락	남	50	경기도의회 부의장
18	경기 부천시오정구	우리당	원혜영	남	52	부천시장
19	경기 광명시을	한나라당	전재희	여	54	광명시장
20	경기 남양주시을	우리당	박기춘	남	47	경기도의회의원
21	경기 파주시	한나라당	이재창	남	67	경기도지사
22	경기 김포시	한나라당	유정복	남	46	김포시장
23	경기 광주시	한나라당	박혁규	남	49	경기도의회의원
24	경기 평택시을	우리당	정장선	남	46	경기도의회의원
25	강원 춘천시	한나라당	허천	남	61	강원도의회의원
26	충북 충주시	우리당	이시종	남	56	충주시장
27	충북 보은·옥천·영동	우리당	이용희	남	72	충북도의회의원
28	충남 당진군	자민련	김낙성	남	61	당진군수
29	충남 천안시을	우리당	박상돈	남	54	대천시장
30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자민련	이인제	남	55	경기도지사
31	전남 여수시을	우리당	주승용	남	51	여수시장
32	전남 나주시화순군	우리당	최인기	남	60	전남도지사
33	경북 안동시갑	한나라당	권오을	남	47	경북도의회의원

〈부록 3〉 계속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경력
34	경북 상주시	한나라당	이상배	남	64	서울시장
35	경북 영양군 · 봉화군 · 울진군	한나라당	김광원	남	63	포항시장
36	경남 진해시	한나라당	김학송	남	51	경남도의회의원
37	경남 통영시고성군	한나라당	김명주	남	37	경남도의회의원
38	비례대표	우리당	김혁규	남	65	경남도지사
39	비례대표	우리당	홍미영	여	49	인천시의회의원
40	비례대표	한나라당	정화원	남	56	부산시의회의원
41	비례대표	한나라당	박순자	여	46	경기도의회의원
42	비례대표	민노당	이영순	여	42	울산 동구청장
43	비례대표	민노당	최순영	여	50	부천시의회의원

〈부록 4〉 지방직 출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경력
1	서울 관악구을	통합민주당	김희철	남	60	관악구청장
2	서울 송파구병	통합민주당	김성순	남	67	송파구청장
3	서울 강동구갑	한나라당	김충환	남	54	강동구청장
4	부산 동래구	무소속	이진복	남	50	동래구청장
5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한나라당	서병수	남	56	해운대구청장
6	부산 연제구	친박연대	박대해	남	64	연제구청장
7	부산 수영구	무소속	유재중	남	52	수영구청장
8	부산 북구강서구을	한나라당	허태열	남	58	충북도지사
9	대구 북구갑	한나라당	이명규	남	52	북구청장
10	대구 달서구을	무소속	이해봉	남	65	대구시장
11	인천 서구강화군갑	한나라당	이학재	남	43	서구청장
12	광주 남구	무소속	강운태	남	59	광주시장
13	광주 북구을	통합민주당	김재균	남	55	북구청장
14	대전 동구	자유선진당	임영호	남	52	동구청장
15	대전 대덕구	자유선진당	김창수	남	53	대덕구청장
16	울산 중구	한나라당	정갑윤	남	57	경남도의원
17	울산 북구	한나라당	윤두환	남	53	울산시의회의원
18	울산 북구	진보신당	조승수	남	46	북구청장
19	경기 부천시 오정구	통합민주당	원혜영	남	56	부천시장
20	경기 광명시갑	통합민주당	백재현	남	56	광명시장
21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한나라당	김성수	남	54	경기도의회의원
22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친박연대	홍장표	남	48	안산시의회의원
23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한나라당	백성운	남	58	고양군수
24	경기 안산단원	한나라당	박순자	여	50	경기도의회의원
25	경기 안성시	한나라당	김학용	남	46	경기도의회 부의장
26	경기 김포시	한나라당	유정복	남	50	김포시장
27	경기 남양주시을	통합민주당	박기춘	남	51	경기도의회의원
28	경기 광명시을	한나라당	전재희	여	58	광명시장
29	경기 평택시갑	한나라당	원유철	남	45	경기도의회의원
30	경기 평택시을	통합민주당	정장선	남	50	경기도의회의원
31	강원 춘천시	한나라당	허천	남	65	강원도의회 의장
32	충북 충주시	통합민주당	이시종	남	60	충주시장
33	충북 보은·옥천·영동	자유선진당	이용희	남	76	충북도의회의원

(부록 4) 계속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나이	경력
34	충남 천안시을	자유선진당	박상돈	남	58	대전시장
35	충남 공주시연기군	자유선진당	심대평	남	67	충남도지사
36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무소속	이인재	남	59	경기도지사
37	충남 당진군	자유선진당	김낙성	남	65	당진군수
38	전북 전주시덕진구	통합민주당	김세웅	남	54	무주군수
39	전북 정읍시	무소속	유성엽	남	48	정읍시장
40	전남 여수시을	통합민주당	주승용	남	55	여수시장
41	전남 나주시화순군	통합민주당	최인기	남	64	전남도지사
42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무소속	김영록	남	53	완도군수
43	전남 무안군신안군	무소속	이윤석	남	48	전남도의회 의장
44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무소속	정해결	남	68	의성군수
45	경남 진해시	한나라당	김학송	남	55	경남도의회의원
46	비례대표	한나라당	이정선	여	48	서울시의회의원
47	비례대표	한나라당	임동규	남	64	서울시의회의원
48	비례대표	친박연대	김을동	여	63	서울시의회의원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Politician-turned National Assemblymen

Junhan Lee | University of Incheon

This essay investigates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Assemblymen who have previously experienced as governors, mayors, or representatives of local legislatures ever since the 1991 local elections. This study explains the recent phenomenon under the rubric of the ambition theory.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first, that the number of such female members are extremely low. Second, the average age of such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higher than expected. Third, city mayors, county heads, and ward heads account for the biggest portion of such members. Forth, the number of new-comers is the highest, and the number decreases as the tenure of office increases. Fifth, the number of the Hannara Party members is far bigger than that of the other parties. Sixth, such members are mainly from the regions of Seoul, Gyeonggi, Pusan, and Kyungbuk. Finall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re good path to realize progressive ambitions.

Keywords: governor, mayor,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man, career path, ambition theory